

# 지역신문의 대학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 : 제주지역 일간신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정용복\*\*, 김치완\*\*\*

- I. 문제제기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IV. 분석 결과
- V. 결론 및 논의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일간신문에 나타난 대학보도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역신문의 보도 유형과 뉴스 게재면, 정보 형태 등의 형식적 구성을 검토하고, 보도 논조와 주요 행위자, 중심주제, 뉴스가치를 확인함으로써 대학보도 특성을 분석했다.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총 1442개의 대학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이 이뤄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도 유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설/분석, 칼럼/논단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보도에 대한 뉴스 게재면은 사람면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면, 사회면 순이었다. 다음으로, 신문사별로 정보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학보도가 주로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화되고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설/분석을 통해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기사가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보도의 논조는 중립적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긍정적 보도가 부정적 보도에 비해 9배 이상 높았다. 대학보도에서 어떤 행위자나 집단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학본부가 가장 많았으며, 교수, 학생 순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보도 중심주제 차원에서 대학보도는 전반적으로 대학행사 홍보와 개인 업적에 대한 내용들을 중시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 보도에 있어서 각종 대회 수상과 논문상, 연구실적 등의 우수성을 강조한 영향성과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는 유용성이 매우 자주 등장하는 뉴스가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지역일간신문이 대학보도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신문사 입장에서 대학이 중요한 출입처로 관심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지역신문, 대학보도, 내용분석, 형식적 특성, 내용적 특성.

## I. 문제 제기

현대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이슈와 현안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려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주변인들과의 대화나 각종 커뮤니티 활동에서 소식과 정보를 얻고 새로운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해 대화나 커뮤니티 활동만으로 모든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기에는 그 범위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뉴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경험케 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며,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대학의 발전상과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지역언론은 그 어떤 미디어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언론의 대학보도가 어떤 이슈와 내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지는 대학이나 대학 진학을 앞둔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대학보도는 대학에 관한 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선택하거나 배제하고, 또 어떤 부분은 강조하거나 축소하면서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보도기사는 그 대학의 호감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1)</sup>

오늘날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수한 신입생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학 지원자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적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2)</sup> 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각 대학이 외부에 비쳐진 전반적인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알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sup>3)</sup>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결정할 때 주변 친구나 진학담당 교사, 학부모 등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에게 지역언론은 그 대학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누적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은 지역민을 독자나 시청자로 하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대학 홍보와 광고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언론사의 대학평가 기사는 교육여건, 연구수준, 교육비용, 사회평판도 등 학생이 대학을 선택할 때 중시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으로 학생의 대학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sup>4)</sup> 언론의 교육보도와 관련된 태도와 시각이 이러한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현실의 인식과 개선을 위해서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sup>5)</sup>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대학보도 뉴스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학보도 뉴스를 다룬 연구는 대학PR 관점에서 전국일간신문 뉴스보도를 내용분석하거나,<sup>6)</sup> 대학 보도자료가 지역일간신문에 어떻게 보도되

- 
- 1) 최태룡,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 대학-경상대학교에 대한 진주시민의 인식 2008년」, 『지역사회학』 11(2), 2010, 63-90쪽.
  - 2) Rynes, S. L. (In press). Recruitment, job choice, and post-hire consequences: A call for new research directions. In M.D. Dunnette & L. Hough (Ed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nd ed.).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forthcoming, 1991.
  - 3) 유태용·이종구, 「대학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성용어들의 요인구조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9(2), 1996, 41-60쪽.
  - 4) 오대영, 「언론사 대학평가 기사가 고교생의 대학평가와 언론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4), 2015, 102-130쪽.
  - 5) 손승혜·황하성·장윤재, 「한국 언론의 교육보도 특성과 뉴스 가치 분석」, 『미디어와 교육』 1(1), 2011, 115-145쪽.
  - 6) 황성욱·이종혁, 「대학보도 분석을 통한 대학이미지 향상 PR전략 탐색: 프레임 분석을

는지를 연구한 논문<sup>7)</sup>과 한국과 미국신문의 대학보도에 대한 비교 연구<sup>8)</sup> 등이 있다. 또 대학보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보도에 대한 특성과 뉴스가치를 분석한 연구<sup>9)</sup>와 교육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연구<sup>10)</sup>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보도와 관련한 내용분석이나 심층인터뷰 접근을 통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전반적인 대학보도 방식과 시각을 검토하고, 대학보도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이 보도됐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지역신문은 전국신문과 비교해 신문 미디어 고유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대학보도 연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단위 뉴스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언론의 대학보도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신문의 보도 유형과 뉴스 게재면, 정보 형태 등의 형식적 구성을 검토하고, 보도 논조와 주요 행위자, 중심주제, 뉴스가치는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지역신문의 대학보도 특성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일간신문에서 제공하는 대학보도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분석해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뉴스 생산 관행과 뉴스가치

언론사는 보도, 논평, 해설 등을 위한 뉴스를 취재하여 기사나 프로그램 등을 생산하는 조직이다. 언론사의 상품인 뉴스 생산 과정은 계획을 위한 편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1), 2011, 123-154쪽.

7) 김희정, 「대학의 대언론홍보에 관한 연구: 대학 보도자료의 지역 신문 보도 경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3), 2006, 141-178쪽.

8) 심재철·정완규·김균수, 「한국과 미국 신문의 뉴스가치 비교: 대학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3), 2003, 95-124쪽.

9) 손승혜·황하성·장윤재, 앞의 2011 글, 115-145쪽.

10) 황하성·손승혜·장윤재, 「교육 보도에 있어서 정보원, 뉴스 선정, 취재 관행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9(1), 2012, 247-277쪽.

집회의, 수집 단계의 취재관행, 뉴스선택의 가치기준, 역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독특한 기사작성 방식 등 관행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sup>11)</sup> 따라서 뉴스가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기사화 방식, 나아가 정보를 얻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제반 과정에 나름의 관행들을 발달시킨다.<sup>12)</sup> 뉴스 생산 관행은 조직 구조의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대로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뉴스 생산조직은 이러한 관행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기삿거리를 수집해 뉴스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고, 그들만의 배타적 체제를 유지했다.<sup>13)</sup>

뉴스 생산의 1차 수행자는 취재기자이다. 기자는 현장에서의 취재 행위를 통해 뉴스 제작 업무를 수행한다. 기자들은 스스로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개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구조화된 일상과 관행, 그리고 표준화된 취재 방식을 통한 직업인으로서의 면모를 훨씬 강하게 가진다.<sup>14)</sup> 이렇게 작성된 뉴스는 지면과 시간 제약에 따라 뉴스생산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1차 생산된 뉴스를 대상으로 각 소속 부서장이 다시 뉴스가치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이 기사를 최종 선택한다. 하지만 뉴스생산 과정은 이처럼 단편적이고 선형적이지 않은 않다. 특정 이슈에 대해 사회적 규범과 가치, 미디어 조직의 압력과 제약, 언론관행, 언론인의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정치적 성향 등의 여러 요인들이 미디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sup>15)</sup> 갠스(Gans, 1979)<sup>16)</sup>는 기자, 미디어조직, 사건, 미디어조직 외부 등 네 가지 요인이, 맥콤스(McCombs, 2004)<sup>17)</sup>는 정보원, 다른 미디어, 미디어 규범과 전통

11) 김사승, 「취재현장과 뉴스룸 내부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방송학보』 26(4), 2012, 7-46쪽.

12) 김동규·김경호, 「국내 신문사 취재 조직체계와 관행에 대한 질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5(2), 2005, 33-68쪽.

13) 김송희·윤석년, 「디지털 환경에 따른 지역신문 뉴스생산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2), 2009, 207-242쪽.

14) 박진우·송현주, 「저널리스트 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문직 노동과 직업 전면에 대한 위기의식」, 『한국언론정보학보』 57, 2012, 49-68쪽.

15) Shoemaker, P. J., & Reese, D. R., "*Mediating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s*". New York: Longman. 1996, 김원용(옮김), 미디어 사회학, 나남, 1997.

16) Gans, H. J.,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Pantheon Books, 1979.

17) McCombs, M. E., "*Setting the agenda*", Cambridge: Polity, 2004.

등 세 가지 요인이 미디어의 뉴스생산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았다. 여기에는 기자 개인의 태도, 가치, 신념, 전문성은 물론 취재원 선택, 마감 시간, 인력 구조, 객관주의, 내부 조직의 가치와 철학, 경영 여건, 취재원과의 관계, 광고주의 영향, 정부의 압력, 시장 상황, 정치경제적 이념과 입장 등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개입한다.<sup>18)</sup> 이는 게이트키퍼의 개인적 가치 및 판단이나 미디어 내부 조직의 결정권보다 오히려 외부 집단의 개입이나 입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sup>19)</sup>

그런 점에서 기자, 미디어조직, 미디어 외부 요인은 뉴스생산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신문기사가 기자 보다 미디어조직의 보도방향에 의해 좌우되고, 미디어조직 규모는 뉴스생산 과정에 영향을 준다.<sup>20)</sup> 미디어조직은 폐쇄적이면서 독자적인 게이트키퍼를 통해 뉴스생산 과정을 작업관행의 연속으로 표준화함으로써 뉴스 제작의 효율성과 뉴스 품질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있다.<sup>21)</sup> 이처럼 뉴스의 선택과 배제는 수많은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ing)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많은 선행연구들은 뉴스의 선택과 배제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뉴스가치라고 전제하고 뉴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치에 주목해 왔다.<sup>22)</sup>

특정한 가치 또는 대상을 위해 선택된 사실이 뉴스화 된다. 전통적인 뉴스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뉴스 선택(news selection)에 관련된 뉴스가치이며, 두 번째는 제대로 보도했느냐는 뉴스 평가(news evaluation) 가치이며, 세 번째는 보도된 뉴스가 얼마나 탐사적인 성격을 갖

18) 이완수·배정근, 「경제 뉴스 품질에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 탐구: 경제 뉴스 전문 매체 생산자와 소비자 집단에 대한 표적 집단 면접(FGI)」, 『미디어 경제와 문화』 14(4), 2016, 102-149쪽.

19) 이완수, 「인물뉴스의 특성과 결정요인 연구 :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2, 2006, 295-332쪽.

20) 오대영·최민음, 「한국 일간지의 헬스기사 보도양상: 종합지와 경제지의 차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6(2), 2016, 101-144쪽.

21) 김경모,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과 온라인 뉴스 생산: 전통과 변화의 경계」, 『언론정보연구』 49(1), 2012, 7-37쪽.

22) 심미선·강혜란, 「지상과 및 인터넷에서만 방영된 19대 총선 관련 뉴스에 대한 대학생 집단의 뉴스가치 평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 뉴스 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7(4), 2013, 85-130쪽.

느냐는 탐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와 관련된 뉴스가치이다.<sup>23)</sup> 언론 입장에서 뉴스가치는 뉴스를 취재, 제작, 전달하는 과정에서 뉴스 기관의 입장, 제작 관행, 언론인의 특성, 기술적 요인, 뉴스 제작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sup>24)</sup>

슈메이커, 데니얼리언, 그리고 브렌들링거(Shoemaker, Danielian, & Brendlinger, 1991)<sup>25)</sup>는 뉴스가치 기준을 시의성, 갈등성, 인간 흥미성, 연관성, 영향성, 선정성 등으로 보았다. 슈메이커와 포에(Shoemaker & Poe 2009)<sup>26)</sup>는 뉴스가치를 일탈성과 사회적 유의성이란 개념으로 분류했는데, 일탈성은 인간적 흥미성, 선정성, 예외성, 탈규범성, 사회적 갈등성, 갈등의 치열성으로 다시 구분했다. 일탈적 사건이나 정보는 본능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뉴스 이용에 적용해 보면 일탈성 높은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가 독자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다.<sup>27)</sup>

국내에서의 뉴스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이종혁, 길우영, 강성민, 그리고 최윤정(2013)<sup>28)</sup>은 4개의 최상위 요인과 10개의 차상위 요인, 30개의 하위 측정항목들로 ‘뉴스가치 구조모델’을 제시했는데, 최상위 요인으로는 사회적 중요도, 새로운 볼거리, 수용자 관련성, 인간적 흥미 등으로, 차상위 요인으로는 영향성, 저명성, 심층성, 갈등성, 참신성, 활동성, 유용성, 근접성, 오락성, 이야기 등으로 뉴스가치를 제시했다. 뉴스의 본질적 속성을 뉴스가치라고 정의한 이민웅(2008)<sup>29)</sup>은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시의성, 뉴스 영향의 세기에 따라 뉴스가치가 달라진다는 영향성, 평정 보다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갈등성, 어떤 변화가 발생할 때 뉴스가 된다

23) 심재철·정완규·김균수, 앞의 2003 글, 98-100쪽.

24) 손승혜·이창현, 『TV 저널리즘과 뉴스 가치: 한국, 영국, 미국 TV뉴스의 내용 분석』, 한국언론재단, 1999.

25) Shoemaker, P. J., Danielian, L. H., & Brendlinger, N., “Deviant acts, risky business, and U.S. interests: The newsworthiness of world events”, *Journalism Quarterly*, 37, 1991.

26) Shoemaker, P. J., & Poe, T. P., “Gatekeeping theory”. New York : Routledge, 2009.

27) 이종혁, 「뉴스의 일탈성이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진화론, 인지부조화, 정보 효용성을 바탕으로 모델 도출」, 『한국언론학보』 53(6), 2009, 241-261쪽.

28) 이종혁·길우영·강성민·최윤정, 「다매체 환경에서의 뉴스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한 종합적 구조적 접근: ‘뉴스 가치 구조모델’ 도출」, 『한국방송학보』 27(1), 2013, 167-212쪽.

29) 이민웅, 『저널리즘의 본질과 실천』, 나남, 2008.

는 뉴스성,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의 밀접성과 관련된 근접성, 유명한 사람이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저명성, 비정상적인 일에 대한 진기성, 군중의 시위, 난동 등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행동성,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뉴스가치가 높아진다는 다기성, 수용자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상 수용자의 성격 등 10가지를 뉴스가치로 들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어떤 사건이 수용자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흥미로울 것이냐 하는 중요성과 흥미성을 최고의 뉴스 가치로 꼽고 있다. 심재철(2003)<sup>30)</sup>은 뉴스가치를 일탈성과 사회적 유의미성, 객관성과 사실성(진실성과 관련성), 공평성(균형성과 중립성), 공표성, 설명성, 통합성, 폭로성, 난폭성, 다양성, 전문성 등으로 구분했다. 심재철 등(2003)<sup>31)</sup>은 뉴스 가치를 갈등성, 인간적 흥미성, 선정성, 진실성, 공정성, 완전성, 전문성, 공표성, 설명성, 통합성, 시의성, 관련성 등으로 분류했다. 이창현과 손승혜(1999)<sup>32)</sup>는 뉴스가치를 시의성, 갈등성, 저명성 등의 경성 뉴스 요인과 인간적 흥미, 부정성, 신기성 등의 연성 뉴스 요인, 그리고 영향성, 활용성 등의 유용성 항목과 TV 뉴스의 특성을 고려한 영상적 볼거리 요인들로 구분했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뉴스 가치에 대한 분류는 순서와 내용을 약간 달리하지만 그 본질적 속성과 연결에 있어서는 모두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 2. 대학보도의 뉴스가치

대학(university)은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되어 상호간 인격자로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며, 이러한 진리탐구를 바탕으로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3대 기능이 제도화된 기관이다. 이러한 교육공동체 내에서 대학 안팎의 여러 가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 환경을 어떻게 풀이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논평의 기능도 요구된다. 또한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와 화젯

30) 심재철,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뉴스가치에 관한 소론」, 『방송통신연구』 47, 2003, 33-60쪽.

31) 심재철·정원규·김균수, 앞의 2003 글, 98-100쪽.

32) 이창현·손승혜, 「뉴스 아이템의 특성에 따른 TV 뉴스의 중요도 차이」, 『한국언론학보』 44(1), 1999, 412-440쪽.



거리, 애깃거리를 제공하는 오락 기능과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기능도 필요하다. 즉 대학보도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각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리는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대학의 학문적, 문화적 성과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학 문제를 이슈화해 심층 취재함으로써 대학 환경을 감시하는 언론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학보도의 뉴스가치는 미디어의 넓은 취재영역과 기능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우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89개의 대학과 10개의 교육대학, 2개의 산업대학과 138개의 전문대학, 기타 47개교 등 모두 386개교가 있으며, 대학에 소속된 학생은 208만4807명, 교육대학 1만5903명, 산업대학 3만3245명, 전문대학 69만7214명, 기타 35만2670명, 대학원 33만2768명 등 학생 351만6607명에 교원 9만371명을 포함해 모두 360만6978명이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sup>33)</sup> 여기에 국립대 공무원과 사립대 사무직원, 더 나아가 사회에 진출한 동문들까지 합하면 대학 인구는 훨씬 많아진다. 이렇게 많은 대학과 대학 소속 구성원들을 취재범위로 하는 대학보도의 영향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대학보도는 대학의 문제를 이슈화해 심층취재함으로써 대학 환경을 감시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대학보도의 중요한 기능은 문화 창조와 전승에 있다. 대학은 진리탐구의 상아탑으로 모든 지식이 생성되고, 응용되는 교육기관이다. 그동안 학문의 연구를 통해 문화적 유산이 축적됐으며, 그것의 교육은 후세로의 문화적 전승을 기약했던 것이다.

특히 지역대학에 대한 뉴스보도의 중요성은 더욱 돋보인다. 현재의 지역대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역대학은 서울·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로 인한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 미충원률 증가,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구심점 미흡 및 파트너십 부재, 졸업생의 취업률 및 질적 수준 저조 등이 다양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기를 상징하기도 한다. 지역민의 요

33)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kess.kedi.re.kr/index> 2017. 7. 26. 접속.

구와 기대에 의해 대학이 설립됐으므로, 지역사회의 문제와 대학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물론 서울에 집중돼 있는 다수의 대학들은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지역민들의 여망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입각해 성립됐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이슈나 문제를 지역언론이 외면한다면 결국은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대학은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는다. 국공립대학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2/3를 점유하는 사립대학이 수행하지 못하거나 앓고 있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중국적으로는 국가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지역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발전 전략을 포함한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평생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민들의 일상에 관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지역사회가 지역대학에 대해 생각만큼의 애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지역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역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하지 않아도 대학의 일이지 지역 사회의 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언론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대학보도에 있어서 무엇이 뉴스로서 선택과 주목을 받고, 어떠한 일은 왜 뉴스로서 배제되고 축소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뉴스가치를 담은 보도 기사를 쓰는 일은 그 과정 자체로서 중요하다.

### 3. 대학보도 선행 연구

국내 언론의 대학보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시도돼 왔는데, 그것도 몇 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까지 많이 수행되지 못했다.

황성욱과 이종혁(2011)<sup>34</sup>은 언론 노출도가 높은 2개의 서울 사립대학에

34) 황성욱·이종혁, 앞의 2011 글, 138-148쪽.

대한 전국일간신문을 분석한 결과, 주요 대학들 중 비교보도가 단독보도보다 많았고, 논조는 중립>긍정>부정의 순서였으며, 심층기사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교수, 타대학관계자, 정부관계자, 졸업생, 사설입학 관계자, 학생 등의 뉴스 정보원이 보도의 주요 소스로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긍정 기사의 경우에는 대학성과 이슈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입시/입학, 대학의 경영, 교수관련 이슈, 그리고 대학이미지 관리 이슈 등이, 부정 기사의 경우에는 대학입시/입학이슈, 졸업생 관련 이슈, 교수관련 이슈, 대학경영 이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밝혀내는 등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하지만 연구자도 밝혔듯이 서울에 소재한 2개의 상위권 대학의 신문보도만을 분석했기에 다양한 보도의 차이점 등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황하성 등(2012)<sup>35)</sup>은 언론사의 교육 관련 기자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국내 언론사의 대학보도를 포함한 교육보도에 대한 취재 관행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기관들을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이들 산하기관의 정부부처 공무원과 같은 인적자원과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보도자료가 기사의 주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언론사 기자들은 교육 관련 뉴스 기사 선택에 있어서 독자 또는 시청자들의 관심사와 그들에게 미칠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대학 입시 문제가 가장 큰 뉴스 주제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와 관련 없는 주제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교육보도의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김희정(2006)<sup>36)</sup>은 지역 국립대학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보도자료가 게재된 지역일간신문을 분석대상으로 대학의 보도자료가 어떻게 기사화됐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학 보도자료는 단과대학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포내용은 학술관련 행사에 관한 것으로, 자료형태는 요약문이나 실제 행사에 사용하는 초대장 및 안내문을 그대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도자료에 의한 지역일간신문의 보도방향은 대부분 중립적인 기사였으며, 긍정적인 보도방향이 부정적인 보도방향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게재면은 동정면이 가장 높은

35) 황하성·손승혜·장윤재, 앞의 2012 글, 26-28쪽.

36) 김희정, 앞의 2006 글, 27-33쪽.

비율을 나타내며, 보도자료의 내용이 기사내용에 반영되는 비율은 약 65%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보도자료의 내용은 일단 기사화가 되면 정보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방향이나 더 나아가 학교홍보에 좋은 효과를 주는 긍정적 보도방향으로 게재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보도자료가 중요한 취재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규명했다.

심재철 등(2003)<sup>37)</sup>은 한국과 미국 신문이 대학이슈와 쟁점을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지를 뉴스가치에 초점을 뒀 비교했다. 그 결과 국내 신문은 미국 신문과 비교해 대학 기사를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도했으며, 공정성, 전문성, 탐사성의 뉴스가치가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을 밝혀냈다. 또한 국내 신문은 대학개혁의 기능적이며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보도에서 미국 신문과 비교해 교육 이념적이며 철학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가 적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심재웅, 김균수, 그리고 이정훈(2001)<sup>38)</sup>은 국내의 신문의 대학기사의 특징과 뉴스가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외 신문은 국내 신문과 달리 대학교육 기사에서 이슈를 보다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국외 신문은 기사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작성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신문은 새로운 뉴스의 개발보다는 손쉽고 틀에 박힌 보도를 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신문이 대학기사를 흥미롭게 쓰기 위해서는 초점 구조, 일화적 프레임, 흥미 프레임 등 다양한 글 쓰기 방식이 도입돼야 하며, 단순한 이슈의 전달보다는 이슈의 극화 및 개인화, 인간적 흥미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준만(1993)<sup>39)</sup>은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를 통해 한국언론과 민주주의 위기를 지적하고, 대학 보도의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한국언론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범적·시론적 연구를 시도했다.

37) 심재철·정완규·김균수, 앞의 2003 글, 23-26쪽.

38) 심재철·심재웅·김균수·이정훈, 「교육보도와 뉴스가치: 국내의 신문의 대학기사 비교분석」,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4-24쪽.

39) 강준만, 『한국언론과 민주주의의 위기: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권, 1993, 31-54쪽.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보도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함으로써 지역일간신문들의 각기 다른 보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대학보도의 형식적 특성으로 기사 유형과 뉴스 게재면, 정보 형태에 대해 분석했다. 다음으로, 대학보도의 논조와 대학보도에서 주로 다루지는 사람 혹은 집단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또 대학보도에서 강조되고 부각된 중심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대학보도에서 중요한 뉴스가치는 무엇인지와 지역일간신문별로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연구문제 1 : 제주지역 일간신문의 대학보도의 형식적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1-1 : 각 신문사의 대학보도의 기사 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1-2 : 각 신문사의 대학보도의 뉴스 게재면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1-3 : 각 신문사의 대학보도의 정보 형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 제주지역 일간신문의 대학보도의 내용적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1 : 각 신문사의 대학보도의 논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2 : 각 신문사의 대학보도의 주요 행위자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3 : 각 신문사의 대학보도의 중심주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4 : 대학보도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등장하는 중심주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 제주지역 일간신문 대학보도에서 중요한 뉴스가치는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제주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등 5개 지역일간지<sup>40)</sup>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기간은 2015년

40) 제주지역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일간신문은 모두 6개이다. 1945년 10월 1일 제주일보 (지금은 제주신보), 1989년 4월 22일 한라일보, 1990년 6월 2일 제민일보, 1999년 3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했다. 이 분석 시기는 3월에 입학 해서 2월에 졸업하는 1년간의 학사일정에 맞춰 운영되는 대학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등 5개 지역일간신문<sup>41)</sup>에 보도된 대학과 관련된 기사들의 내용분석을 위해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제주지역 국립대학인 ‘A대’, ‘A대학’, ‘A대학교’ 등의 검색어를 입력해 자료를 수집했다. 검색어를 제주지역의 국립대학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인 ‘대학’으로 검색할 시에는 연구범위로 설정한 ‘대학보도’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많은 일반 뉴스가 수집되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대상을 제주지역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지리적 영역인 지역을 연구하는 것은 그 규모나 구조적 차원에서 범위가 좁고 경험적으로 접근하기 쉬워 보다 넓은 범위의 복잡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탐사 및 연구의 기초로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교수나 대학 관계자가 취재원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대학보도와 관련되지 않은 뉴스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제주신보 362건(25.1%), 한라일보 263건(18.2%), 제민일보 283건(19.6%), 제주매일 210건(14.6%), 제주신문 324건(22.5%) 등 총 1442건의 기사가 연구에 이용됐다.

---

월 30일 제주매일(주간발행에서 2004년 일간지 전환), 2013년 11월 22일 제주신문 등이 잇달아 창간됐다. 마지막으로, 2015년 11월 16일 제주일보가 창간됐지만, 분석기간에 일부만 포함돼 있어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제주일보가 창간될 당시 제주에서 제주일보 제호로 2개의 신문이 동시에 발행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5년 12월 1일자로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가 제호를 기존 제주일보에서 JJ제주일보로 변경했고, 추후 12월 15일부터 다시 제주신보로 제호를 변경해 발행하고 있다.

- 41) 한국ABC협회에 따르면 제주지역 일간신문의 평균 발행부수는 15,558부로 전국 평균 60,000부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신보는 2016년 발행부수가 22,460부로 2위인 제민일보 18,417부 보다 4043부가 많았다. 반면에 유료부수는 한라일보가 11,549부로 제민일보의 유료부수 11,262부보다 287부 많았다. 실질적 구독자수를 평가하는 유통율에서는 한라일보가 64.0%로 가장 높았고, 제민일보 61.15%, 제주신보 46.79% 순이었으면, 반면에 제주신문은 28.05%로 나타났다.

## (2) 분석유목과 신뢰도

본 연구는 지역일간신문에서의 대학보도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했다. 분석유목은 기사 유형, 뉴스 게재면, 정보 형태, 보도 논조, 주요 행위자, 보도 중심주제, 뉴스가치 등 7개 항목이다.

보도 유형은 ① 스트레이트 ② 해설/분석 ③ 기획/특집 ④ 인터뷰 ⑤ 사설 ⑥ 칼럼/논단 ⑦ 독자투고 ⑧ 사진 ⑨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스트레이트는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에 그친 보도 중심의 기사를 말하며, 해설/분석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동기, 중요성, 배경, 분석, 전망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기사다. 기획/특집은 기획 특집 기사 및 연재물 기사를 말하며, 인터뷰는 특정 인물과의 대담 및 인터뷰 위주로 구성돼 있는 기사, 칼럼/논단은 신문사 내 논설위원이 쓴 사설과 신문사 비상임 논설위원이나 대학교수 기고 글이 시론이나 칼럼으로 게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독자투고는 외부 필자가 기고한 글의 형태를 말하며,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는 별개의 단독 사진의 경우에 하나의 기사로 취급했다. 이외의 기사들은 기타로 분류했다.

뉴스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사 게재면은 5개 분석대상 신문<sup>42)</sup>이 거의 유사한 지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① 1면 ② 종합(2-3면) ③ 사회(4-5면) ④ 경제 ⑤ 문화 ⑥ 사람면(동정) ⑦ 오피니언 ⑧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1면과 종합면은 그날 발생한 뉴스 가운데 중요한 기사를 다루는 지면이다.

정보 형태는 ① 공개 정보 ② 재가공 정보 ③ 단독입수 정보 ④ 단독개발

42) 제주신보의 지면 구성은 1면, 2~3면 종합, 4~5면 사회, 6면 교육·문화, 7면 경제, 8~9면 사람과 사람들, 10면 전국종합/기획, 11면 열린 페이지·날씨, 12면 스포츠·연예, 13면 방송·운세, 14~15면 오피니언, 16면 전면광고를, 한라일보 1면, 2~3면 종합, 4~5면 사회, 6면 경제, 7면 기획, 8면 문화, 9~10면 전면광고, 11면 스포츠·TV·운세, 12~13면 사람과 사람, 14~15면 오피니언, 16면 전면광고를, 제민일보 1면, 2~3면 종합, 4~5면 사회, 6면 경제, 7면 스포츠, 8면 문화, 9면 TV·연예, 10면 전면광고, 11면 기획, 12~13면 일과 사람들, 14~15면 오피니언, 16면 전면광고를, 제주매일은 1면, 2~3면 종합, 4~5면 사회, 6면 경제, 7면 전국종합/기획, 8면 TV·연예, 9면 매일게시판, 10~11면 사람과 사람, 12면 문화, 13면 스포츠, 14~15면 오피니언, 16면 전면광고를, 제주신문은 1면, 2면 오피니언, 3면 종합, 4~5면 사회, 6면 경제, 7면 행정, 8면 문화, 9면 스포츠, 10면 전국종합, 11면 전면광고, 12~13면 사람들, 14면 오피니언, 15면 TV·연예, 16면 전면광고로 구성돼 있다.

정보 ⑤ 기타 등으로 측정했다. 정보 형태 분류는 이완수·배재영·임봉수 (2015)<sup>43)</sup>와 이건호(2008)<sup>44)</sup>의 선행연구를 인용했다. 공개 정보는 대학보도 사안을 다루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모든 언론에게 공개된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한 기사이며, 재가공 정보는 공개 정보를 중심으로 했지만,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주어진 정보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관련 내용 등을 추가 취재해 정보 내용을 보강한 기사를 말한다. 단독입수 정보는 특정 취재원이 한 언론사에게만 정보를 줘서, 해당 언론사가 그 내용을 단독이나 특종으로 보도한 기사이며, 단독개발 정보는 기자의 독자적 기획이나 탐사에 의해 발굴된 기사를 의미한다. 이 분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기타로 구분했다.

보도 논조는 기사에 드러난 대학보도와 관련된 태도로서 기사 제목과 리드문에 있는 긍정적, 부정적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근거로 ① 긍정 ② 부정 ③ 중립으로 분류했다.

대학보도와 관련한 기사에서 어떤 집단이나 기관이 비중 있게 등장했는지를 보기 위해 주요 행위자를 분석했다. 언론이 그 이슈와 관련된 여러 주요 행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어느 계층이나 집단이 언론의 주목을 더 많이 받는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up>45)</sup> 주요 행위자는 기사 제목과 리드문에서 주어가 분명히 제시되고 능동적 행동이 드러난 경우 주요 행위자로 범주화 했으며, 가장 중요한 행위자를 선별했다. 구체적인 주요 행위자들로 ① 교수 ② 학생 ③ 직원 ④ 동문 ⑤ 일반도민 ⑥ 총장 ⑦ 대학본부 ⑧ 단과대학/소속기관 ⑨ 연구소/연구센터 ⑩ 산학협력/사업단 ⑪ 교육부/국가기관 ⑫ 제주도/제주도교육청 등 지방기관 ⑬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보도 중심주제는 ① 입시/입학 ② 실태/통계 ③ 교육정책 ④ 비리/사고 ⑤ 행사/홍보 ⑥ 선거 ⑦ 인사동정 ⑧ 대학 경영/성과 ⑨ 개인성과 ⑩ 발전

43) 이완수·배재영·임봉수, 「지역신문 뉴스구성요소의 구조분석: 부산일보 기사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3), 2015, 17-18쪽.

44) 이건호, 「한·미 신문기사의 심층성과 신뢰도 및 독창성 분석: 6개 한국 신문과 2개 미국 신문 1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5), 2008, 13-14쪽.

45) 임양준, 「용산사태에 대한 일간신문의 뉴스보도 비교연구 :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1), 2010, 348쪽.



기금/장학금 ⑪ 기타 등으로 유목을 정리했다. 이러한 유목 사용은 손승혜·황하성·장윤재(2011)<sup>46)</sup>에서 사용한 분류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했다. 입시/입학은 대학 진학과 입시에 관한 보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실태/통계는 입시와 관련되지 않은 대학통계 관련 보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교육정책은 교육부 등 국가기관이 발표한 교육 관련 정책을 다룬 보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비리/사고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비리 및 사건, 사고 등을 내용으로 한다. 행사/홍보는 대학 행사와 관련한 홍보성 보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선거는 대학 총장 및 단과대학장, 학생회장 등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선거 관련 보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인사동정은 총장, 교수 등 대학 관련 인사들의 개인적인 인사와 동정, 교수 채용 등의 기사를 포함한다. 대학 경영/성과는 일반적인 대학 경영 이슈와 경영 성과, 국가사업 선정, 학술협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개인성과는 대학 교수나 대학원생, 학생들의 논문상과 학술상 수상, 저술상이나 우수도서 선정, 최초 연구 및 성과, 학회장 취임 등의 개인적인 업적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발전기금/장학금은 발전기금이나 장학금 기탁 및 전달을 포함한 이와 관련한 보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분류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뉴스가치는 선행연구(정수영·남상현, 2012)<sup>47)</sup>를 인용해 ① 시의성 ② 저명성 ③ 영향성 ④ 유용성 ⑤ 갈등성 ⑥ 부정성 ⑦ 인간적 흥미 등 7개 유목으로 분류했다. 시의성은 뉴스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사건이 얼마나 최근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평가로 측정된다. 구체적으로 어제와 오늘 발생한, 혹은 발전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뉴스에 해당한다. 저명성은 뉴스가 사회적으로 저명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나 장소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나 장소에 관한 뉴스이다. 영향성은 뉴스에서 언급되는 사건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평가로서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강도가 높은 경우의 뉴스이다. 유용성은 수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에 대한 평가로서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46) 손승혜·황하성·장윤재, 앞의 2011 글, 142-143쪽.

47) 정수영·남상현, 「지상파TV 3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무보도와 단독보도 뉴스에 관한 연구: 뉴스 주제와 뉴스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4), 2012, 282쪽.

언을 수 있는 뉴스에 해당한다. 갈등성은 뉴스 주체 간의 폭력, 충돌, 싸움, 긴장 등 갈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평가로서 개인, 집단 상호간의 싸움, 대립 등에 관한 뉴스이다. 부정성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감시를 통해 환경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적 가치관에 반하는 사건/사고를 다루는 뉴스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적 흥미는 사건의 비중이나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수용자들의 흥미/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에 대한 평가로서 독특하고 흥미 있는 요소들이나 볼거리, 진기하거나 색다른 것을 다루는 뉴스에 해당한다. 기사에는 여러 가지의 뉴스 가치가 겹쳐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뉴스가치를 선정했다.

〈표 1〉 분석 유목

항 목	측정 방식
지역일간신문	① 제주신보(구 제주일보) ② 한라일보 ③ 제민일보 ④ 제주매일 ⑤ 제주신문
기사 유형	① 스토레이트 ② 해설/분석 ③ 기획/특집 ④ 인터뷰 ⑤ 사실 ⑥ 칼럼/논단 ⑦ 독자투고 ⑧ 사진 ⑨ 기타
뉴스 게재면	① 1면 ② 종합(2~3면) ③ 사회(4~5면) ④ 경제 ⑤ 문화 ⑥ 사람면 ⑦ 오피니언 ⑧ 기타
정보 형태	① 공개 정보(보도자료 의존 기사) ② 재가공 정보 ③ 단독입수 정보 ④ 단독개발 정보 ⑤ 기타
보도 논조	① 긍정 ② 부정 ③ 중립
주요 행위자	① 교수 ② 학생 ③ 직원 ④ 동문 ⑤ 일반도민 ⑥ 총장 ⑦ 대학본부 ⑧ 단과대학/소속기관 ⑨ 연구소/연구센터 ⑩ 산학협력/사업단 ⑪ 교육부/국가기관 ⑫ 제주도/제주도교육청 ⑬ 기타
보도 중심주제	① 입시/입학 ② 실적/통계 ③ 교육정책 ④ 비리/사고 ⑤ 행사/홍보 ⑥ 선거 ⑦ 인사동정 ⑧ 대학 경영/성과 ⑨ 개인성과 ⑩ 발전기금/장학금 ⑪ 기타
뉴스가치	① 시의성 ② 저명성 ③ 영향성 ④ 유용성 ⑤ 갈등성 ⑥ 부정성 ⑦ 인간적 흥미

연구자와 두 명의 코더는 정확한 분석유목의 측정을 위해 전체 분석 대상의 4% 가량에 해당하는 보도기사 50건을 임의 추출해 교차적으로 코딩했다. 연구자와 두 명의 코더는 분석항목에 대해 이틀에 걸쳐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모호한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뒤 재코딩함으로써 신뢰도 수준을 높였다. 신뢰도 검증은 코헨의 카파(Cohen's k) 공식을 이용했다. 분석 항목별 신뢰도 수준은 보도 유형 0.88, 정보 형태 0.78, 보도 논조 0.86, 주요 행위자 0.74, 보도 중심주제 0.74, 뉴스가치 0.72

로 전 항목에 대해 0.72-0.88을 보였다. 코딩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 IV. 분석 결과

### 1. 대학보도의 형식적 특성

#### 1) 대학보도의 기사 유형

대학보도에 대한 지역일간신문의 관심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신문사별 보도량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신문보도는 전체 1442건으로, 제주신보가 25.1%(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신문 22.5%(324건), 제민일보 19.6%(283건), 한라일보 18.2%(263건), 제주매일 14.6%(210건) 순이었다.

〈표 2〉 신문사별 기사 유형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보도 유형	스트레이트	341(94.2)	247(93.9)	226(79.9)	191(91.0)	309(95.4)	1314(91.1)
	해설/분석	12(3.3)	6(2.3)	37(13.1)	10(4.8)	6(1.9)	71(4.9)
	기획/특집	4(1.1)	0	4(1.4)	2(1.0)	0	10(0.7)
	인터뷰	1(0.3)	1(0.4)	3(1.1)	0	1(0.3)	6(0.4)
	사설	0	0	2(0.7)	0	0	2(0.1)
	칼럼/논단	3(0.8)	3(1.1)	8(2.8)	2(1.0)	4(1.2)	20(1.4)
	독자투고	0	2(0.8)	1(0.4)	0	0	3(0.2)
	사진	1(0.3)	4(1.5)	2(0.7)	4(1.9)	4(1.2)	15(1.0)
기타	0	0	0	1(0.5)	0	1(0.1)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chi^2=96.56$ ,  $df=32$ ,  $p<.001$

대학보도에 대한 보도 유형으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91.1%(1314건)로 가장 많았고, 해설/분석 4.9%(71건), 칼럼/논단 1.4%(20건), 사진 1.0%(15건), 기획/특집 0.7%(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 보도 유형에 있어서 모두 스트레이트 기사가 월등히 많았다. 전반적으로 대학보도에 대한 지역일

간신문 보도가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취재원이 언론에 보도를 요청하기 위해 제공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작성됐으며, 심층보도 형태인 해설분석형 기사나 기획특집형 기사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신문사별로 보도유형을 살펴보면, 제주신문 95.4%(309건), 제주신보 94.2%(341건)의 스트레이트 기사가 다른 신문사 기사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의 지역신문도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다른 신문사와는 달리 제민일보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 비중이 79.9%(226건)으로 가장 낮았고, 반면에 해설/분석의 보도 유형이 13.1%(37건)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 2) 대학보도의 뉴스 게재면

대학보도 기사가 게재된 지면을 분석했다. 뉴스 게재면 분석은 대학보도가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대학보도에 대한 뉴스 게재면은 사람면이 49.8%(718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면 20.4%(294건), 사회면 20.1%(290건) 순이었다. 뉴스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1면과 종합면 비중이 전체 4.3%(62건)에 불과해 지역신문은 대학 뉴스를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보도에 가운데 일반적인 행사기사가 동정 위주의 사람면에 집중 배치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면에는 대학 홍보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총장 동정이나 학교 행사 위주의 기사들이 주로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 게재면을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사람면 게재 경향이 뚜렷했으며, 제주신보의 경우 다른 신문사보다 문화면에 31.2%(113건)가 게재됐다. 반면에 제민일보는 대학보도의 사회면 게재(32.2%)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 신문사별 뉴스 게재면

단위: 건(%)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게재면	1면	6(1.7)	6(2.3)	1(0.4)	6(2.9)	5(1.5)	24(1.7)
	종합(2-3면)	6(1.7)	10(3.8)	8(2.8)	5(2.4)	9(2.8)	38(2.6)

사회(4·5면)	41(11.3)	43(16.3)	91(32.2)	48(22.9)	67(20.7)	290(20.1)
경제	6(1.7)	0	4(1.4)	5(2.4)	5(1.5)	20(1.4)
문화	113(31.2)	33(12.5)	37(13.1)	46(21.9)	65(20.1)	294(20.4)
사람	182(50.3)	162(61.6)	121(42.8)	90(42.9)	163(50.3)	718(49.8)
오피니언	0	5(1.9)	12(4.2)	2(1.0)	4(1.2)	23(1.6)
기타	8(2.2)	4(1.5)	9(3.2)	8(3.8)	6(1.9)	35(2.4)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chi^2=122.05$ ,  $df=28$ ,  $p<.001$

### 3) 대학보도의 정보 형태

신문사별로 정보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당일 발표된 보도자료 등의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기사 작성 비중이 80.0%(115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한 경우가 13.2%(190건), 단독 개발 정보 4.9%(70건), 기타 1.8%(26건), 단독 입수정보 0.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보도가 주로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화되고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설이나 분석을 통해 기사가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제주신문 89.2%(289건), 제주신보 85.1%(308건), 한라일보 84.0%(221건) 순으로 공개 정보를 통해 보도하고 있었다. 이는 주로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보도자료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제주신보와 제주신문 순으로 전체 보도량은 가장 많았으나 각각 85.1%, 89.2%의 기사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민일보는 공개 정보가 62.2%(176건)로서 가장 낮았으며, 재가공 정보가 21.2%(60건)로 가장 높았고, 단독개발 정보도 12.7%(36건)로서 다른 신문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했다. 이는 제민일보 대학담당 기자가 공개된 정보자료를 기초로 해석과 분석을 곁들여 기사를 작성하거나 기자 스스로 핵심정보를 발굴하거나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신문사별 정보 형태

단위: 건(%)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정보 형태	공개 정보	308(85.1)	221(84.0)	176(62.2)	160(76.2)	289(89.2)	1154(80.0)
	재가공 정보	40(11.0)	26(9.9)	60(21.2)	38(18.1)	26(8.0)	190(13.2)
	단독입수 정보	0	0	2(0.7)	0	0	2(0.1)
	단독개발 정보	11(3.0)	10(3.8)	36(12.7)	8(3.8)	5(1.5)	70(4.9)
	기타	3(0.8)	6(2.3)	9(3.2)	4(1.9)	4(1.2)	26(1.8)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X<sup>2</sup>=105.27, df=16, p<.001

## 2. 대학보도의 내용적 특성

### 1) 대학보도의 논조

대학보도의 논조를 보면 중립적 보도가 59.5%(858건)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긍정 36.5%(526건), 부정 4.0%(58건) 순이었다. 중립적 보도가 가장 많았으나, 긍정적 보도가 부정적 보도에 비해 9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긍정적 보도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는 대학본부(22.8%), 학생(21.1%), 교수(17.5%) 순이었고, 부정적 보도 중에서 주요 행위자는 대학본부와 학생(37.9%)이 공동으로 가장 높았고, 교수(5.2%) 순이었다. 또한 긍정적 보도에 있어서 중심주제는 개인성과(31.2%), 행사/홍보(26.6%), 대학경영/성과(22.2%) 순이었고, 부정적 보도 중에서 중심주제는 실태/통계(41.4%), 비리/사고(27.6%), 입시/입학(8.6%) 순이었다. 이는 보도자료에 의해 개인이나 대학 경영 성과를 지역신문이 보도화했기 때문에 긍정적 논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사별로 특이한 점은 전반적으로 중립적 보도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제민일보의 부정적 보도(35건)가 제주신보(11건)에 비해 최소 3배, 제주신문(2건)보다는 최대 1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연구기간 이 신문사 대학담당기자의 취재보도 태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신문사별 보도 논조

단위: 건(%)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보도 논조	긍정	135(37.3)	107(40.7)	99(35.0)	65(31.0)	120(37.0)	526(36.5)
	부정	11(3.0)	5(1.9)	35(12.4)	5(2.4)	2(0.6)	58(4.0)
	중립	216(59.7)	151(57.4)	149(52.7)	140(66.7)	202(62.3)	858(59.5)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X<sup>2</sup>=71.54, df=8, p<.001

## 2) 대학보도의 주요 행위자

대학보도에서 어떤 활동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나 집단이 비중 있게 등장했는지를 확인했다. 이는 뉴스보도를 통해 기사에서 인용한 사람 혹은 집단이 누구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주로 누구의 입장과 시각을 통해 보도가 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전체 대학보도에서 주요 행위자로서 대학본부가 22.4%(32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수 16.0%(231건), 학생 15.0%(217건), 산학협력/사업단 12.0%(173건), 단과대학/소속기관 11.6%(167건), 연구소/연구센터 7.8%(113건) 순이었다. 그러나 직원(1.2%)과 동문(2.2%) 그리고 제주도/지방기관(0.3%)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대학보도 특성상 대학3주체의 교수·학생·직원에 대한 뉴스보도 보다는 보도자료의 주요 정보원인 대학본부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제주신문에서 산학협력/사업단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는 보도가 18.8%(61건)로서 월등히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라일보에서 다뤄진 대학본부 보도 건수(46건)가 제주신보(80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6〉 신문사별 주요 행위자

단위: 건(%)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주요 행위자	교수	53(14.6)	56(21.3)	46(16.3)	36(17.1)	40(12.3)	231(16.0)
	학생	53(14.6)	48(18.3)	49(17.3)	35(16.7)	32(9.9)	217(15.0)
	직원	6(1.7)	5(1.9)	4(1.4)	1(0.5)	2(0.6)	18(1.2)
	동문	8(2.2)	6(2.3)	6(2.1)	5(2.4)	7(2.2)	32(2.2)
	일반도민	8(2.2)	9(3.4)	6(2.1)	5(2.4)	4(1.2)	32(2.2)

총장	27(7.5)	19(7.2)	18(6.4)	11(5.2)	25(7.7)	100(6.9)
대학본부	80(22.1)	46(17.5)	70(24.7)	53(25.2)	74(22.8)	323(22.4)
단과대학/소속기관	49(13.5)	28(10.6)	28(9.9)	26(12.4)	36(11.1)	167(11.6)
연구소/연구센터	26(7.2)	12(4.6)	18(6.4)	18(8.6)	39(12.0)	113(7.8)
산학협력/사업단	44(12.2)	27(10.3)	25(8.8)	16(7.6)	61(18.8)	173(12.0)
교육부/국가기관	4(1.1)	2(0.8)	11(3.9)	3(1.4)	1(0.3)	21(1.5)
제주도/지방기관	1(0.3)	2(0.8)	1(0.4)	0	1(0.3)	5(0.3)
기타	3(0.8)	3(1.1)	1(0.4)	1(0.5)	2(0.6)	10(0.7)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chi^2=81.75$ ,  $df=48$ ,  $p<.05$

### 3) 대학보도의 중심주제

대학보도에 대한 중심주제를 살펴보면, 대학 행사와 관련한 홍보성 보도인 행사/홍보가 35.4%(511건)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교수나 학생들의 논문상과 학술상 수상이나 최초 연구 및 성과 등을 포함한 개인성과가 17.8%(256건), 국가사업 선정 및 학술협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경영/성과가 17.5%(252건), 개인적인 인사와 동정, 교수 채용 등의 인사/동정이 7.0%(101건), 대학 진학과 입시에 관한 보도인 입시/입학이 5.8%(84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리/사고 기사는 2.0%(29건), 선거 기사는 단 0.3%(4건)에 그쳤다. 선거 기사가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연구기간 동안 대학 총장 선거가 없었으며, 매년 치르는 총학생회 선거에는 지역신문이 당선자 확정보도 외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문사별로는 입시/입학, 비리/사고, 인사동정, 대학이나 개인의 성과, 발전기금/장학금에 대한 보도 내용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만, 제민일보는 대학과 관련된 실태/통계 10.2%(29건)와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정책이 8.1%(23건)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많은 반면에 행사/홍보 기사는 10.2%(29건)로 다른 신문사보다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신문사별 보도 중심주제 단위: 건(%)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보도 중심 주제	입시/입학	23(6.4)	13(4.9)	16(5.7)	11(5.2)	21(6.5)	84(5.8)
	실태/통계	10(2.8)	10(3.8)	29(10.2)	6(2.9)	5(1.5)	60(4.2)
	교육정책	9(2.5)	9(3.4)	23(8.1)	6(2.9)	5(1.5)	52(3.6)
	비리/사고	7(1.9)	5(1.9)	9(3.2)	6(2.9)	2(0.6)	29(2.0)
	행사/홍보	133(36.7)	80(30.4)	70(24.7)	80(38.1)	148(45.7)	511(35.4)
	선거	1(0.3)	1(0.4)	1(0.4)	1(0.5)	0	4(0.3)
	인사동정	25(6.9)	22(8.4)	16(5.7)	20(9.5)	18(5.6)	101(7.0)
	대학경영/성과	60(16.6)	43(16.3)	54(19.1)	31(14.8)	64(19.8)	252(17.5)
	개인성과	68(18.8)	63(24.0)	45(15.9)	37(17.6)	43(13.3)	256(17.8)
	발전기금/장학금	24(6.6)	15(5.7)	12(4.2)	11(5.2)	15(4.6)	77(5.3)
	기타	2(0.6)	2(0.8)	8(2.8)	1(0.5)	3(0.9)	16(1.1)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chi^2=112.82$ ,  $df=40$ ,  $p<.001$

#### 4) 대학보도의 주요 행위자들의 중심주제

대학보도에 대한 주요 행위자들의 중심 주제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교수들은 논문상과 학술상 수상 등의 개인성과가 51.5%(11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인사/동정 15.2%(35건), 행사/홍보 14.3%(33건) 순이었다. 학생들 역시 개인적인 업적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성과가 53.5%(116건)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행사/홍보 21.7%(47건), 실태/통계 5.5%(12건) 순이었다. 기사 빈도가 매우 낮은 직원은 행사/홍보 44.4%(8건), 인사/동정 22.2%(4건), 대학경영/성과 16.7%(3건) 순으로, 동문은 행사/홍보 31.3%(10건), 발전기금/장학금 28.1%(9건), 인사/동정 21.9%(7건)으로 나타났다. 일반도민은 학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기탁이나 장학금 전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발전기금/장학금이 90.6%(29건)를 차지했다.

총장은 국가사업 선정이나 학술협정 체결 등 대학경영/성과가 45.0%(45건)으로 가장 많이 보였고, 대학본부는 행사/홍보 31.0%(100건), 대학경영/성과 28.2%(91건), 입시/입학 17.0%(55건) 순이었다. 단과대학/소속기관, 연구소/연구센터, 산학협력/사업단 모두 행사/홍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운 대학경영/성과 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 주요 행위자들의 보도 중심주제      단위: 건(%)

		주요 행위자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일반도민	총장	대학본부
보도 중심 주제	입시/입학	0	8(3.7)	0	0	2(6.3)	0	55(17.0)
	실태/통계	8(3.5)	12(5.5)	0	0	0	0	33(10.2)
	교육정책	11(4.8)	9(4.1)	0	0	0	6(6.0)	8(2.5)
	비리/사고	3(1.3)	11(5.1)	0	0	0	1(1.0)	10(3.1)
	행사/홍보	33(14.3)	47(21.7)	8(44.4)	10(31.3)	1(3.1)	6(6.0)	100(31.0)
	선거	0	4(1.8)	0	0	0	0	0
	인사동정	35(15.2)	4(1.8)	4(22.2)	7(21.9)	0	31(31.0)	20(6.2)
	대학경영/ 성과	3(1.3)	1(0.5)	3(16.7)	5(15.6)	0	45(45.0)	91(28.2)
	개인성과	119(51.5)	11(6.5)	2(11.1)	1(3.1)	0	10(10.0)	0
	발전기금/ 장학금	7(3.0)	1(0.5)	1(5.6)	9(28.1)	29(90.6)	1(1.0)	6(1.9)
기타	12(5.2)	4(1.8)	0	0	0	0	0	
전체	231(100)	217(100)	18(100)	32(100)	32(100)	100(100)	323(100)	

		주요 행위자						전체
		단과대학/ 소속기관	연구소/ 연구센터	산학협력/ 사업단	교육부/ 국가기관	제주도/ 지방기관	기타	
보도 중심 주제	입시/입학	17(10.2)	0	2(1.2)	0	0	0	84(5.8)
	실태/통계	2(1.2)	0	1(0.6)	4(19.0)	0	0	60(4.2)
	교육정책	2(1.2)	2(1.8)	2(1.2)	11(52.4)	1(20.0)	0	52(3.6)
	비리/사고	2(1.2)	0	2(1.2)	0	0	0	29(2.0)
	행사/홍보	107(64.1)	92(81.4)	95(54.9)	6(28.6)	3(60.0)	3(30.0)	511(35.4)
	선거	0	0	0	0	0	0	4(0.3)
	인사동정	0	0	0	0	0	0	101(7.0)
	대학경영/ 성과	35(21.0)	12(10.6)	5(32.4)	0	1(20.0)	0	252(17.5)
	개인성과	0	4(3.5)	3(1.7)	0	0	1(10.0)	25(6.1)
	발전기금/ 장학금	2(1.2)	3(2.7)	12(6.9)	0	0	6(60.0)	77(5.3)
기타	0	0	0	0	0	0	16(1.1)	
전체	167(100)	113(100)	173(100)	21(100)	5(100)	10(100)	1442(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sup>2</sup>=1963.58, df=120, p<.001

### 3. 대학보도의 뉴스 가치

지역신문에서 중요시 한 대학보도의 뉴스 가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1442개 기사에서 나타난 뉴스가치는 영향성 27.3%(394건), 유용성 22.7%(327건), 시의성 19.4%(280건), 저명성 17.1%(246건), 인간적 흥미 8.7%(126건), 부정성 3.2%(46건), 갈등성 1.6%(23건)이었다. 뉴스에서 언급되는 사건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성(27.3%)과 대학정보와 관련한 유용성(22.7%)이 대학보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뉴스가치였다. 반면에 환경감시 기능에 대한 부정성(3.2%)과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갈등성(1.6%)은 대학보도에서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특이한 점은 제주매일과 제주신문의 부정성 뉴스가 단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제민일보는 대학보도 뉴스가치에서 유용성(18.0%)은 가장 낮은 반면에 부정성(11.3%)과 갈등성(2.5%)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신문사별 뉴스가치

단위: 건(%)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뉴스 가치	시의성	69(19.1)	36(13.7)	42(14.8)	41(19.5)	92(28.4)	280(19.4)
	저명성	65(18.0)	44(16.7)	43(15.2)	33(15.7)	61(18.8)	246(17.1)
	영향성	92(25.4)	94(35.7)	83(29.3)	57(27.1)	68(21.0)	394(27.3)
	유용성	87(24.0)	55(20.9)	51(18.0)	55(26.2)	79(24.4)	327(22.7)
	갈등성	4(1.1)	3(1.1)	7(2.5)	7(3.3)	2(0.6)	23(1.6)
	부정성	10(2.8)	4(1.5)	32(11.3)	0	0	46(3.2)
	인간적흥미	35(9.7)	27(10.3)	25(8.8)	17(8.1)	22(6.8)	126(8.7)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X^2=128.69$ ,  $df=24$ ,  $p<.00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일간신문의 대학보도기사 분석을 위해 보도 유형, 뉴스 게재면, 정보 형태, 보도 논조, 주요 행위자, 보도 중심주제, 뉴스가치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지역신문이 대학보도를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어떤 논조와 내용을 통해 지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우선 지역대학에 대한 지역언론의 관심도를 알아보았다. 즉 지역신문에서

지역 최고의 고등기관인 대학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관으로 상정했다면 당연히 많은 수의 기사가 중요 지면에 소개되고, 스트레이트 뉴스 보다 심층적인 해설/기획 보도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 결과 대학보도에 대한 보도 유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설/분석, 칼럼/논단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 보도 유형에 있어서도 모두 스트레이트 기사가 월등히 많은 것처럼 대학보도에 대한 지역일간신문 보도가 사실에 기반을 둔 스트레이트 기사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언론용으로 발표되는 보도자료에 의해 작성된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이며, 기자들이 취재원을 직접 접촉하거나 중대한 문서를 바탕으로 하는 심층적인 해설분석형 기사나 기획특집형 기사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획특집형 기사가 적다는 사실은 지역신문이 기획 기사를 다루기 위한 노력이 적거나, 대학 홍보팀에서 지역신문이 적극적으로 기획특집형 기사를 다루기 위한 취재협조에 대한 요청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또한 2건에 그치고 있다. 사실은 신문과 독자 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사실과 객관적 수치, 통계 등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공간<sup>48)</sup>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여론 일반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언론사의 입장을 표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49)</sup>. 이를 통해 신문사 입장에서 대학 뉴스보도는 물론 대학이 중요한 출입처로 관심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대학보도 기사가 게재된 지면을 분석한 결과 대학보도가 소홀히 다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보도에 대한 뉴스 게재면은 사람면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면, 사회면 순이었다. 뉴스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1면과 종합면 비중이 전체 4.3%(62건)에 불과해 지역신문은 대학뉴스를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았다. 신문의 1면은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포괄하는 공간으로 기사 선택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우선하는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간이다<sup>50)</sup>. 사람면은 통상 언론에 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목소리

48) 홍주현·김경희,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뉴미디어 정책 관련 사설의 의제 및 보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2017, 162-177쪽.

49) 원숙경·문종대, 「4대강 사업에 대한 시기별 뉴스프레임 비교 연구: 영남 지역 6개 신문의 사실과 칼럼을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20(3), 2016, 65-91쪽.

50) 홍병기,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른 뉴스가치 비교 분석: 국내 영자신문 사례 연구를 중

를 내지 못하는 일반 수용자들의 여론 중심의 민주주의 토대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입장에서 의미가 있지만<sup>51)</sup>, 주로 지역사회에서 매일 발생하는 지역민들이나 단체들의 이슈 가운데 선별되는 뉴스가 사람면에 배치된다<sup>52)</sup>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보도가 언론사에 의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보도가 행사나 동정 위주의 사람면에 집중 배치돼 있는 것은 김희정(2006)<sup>53)</sup>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쓰인 기사의 절반 정도가 사람면(동정면)에 실고 있다는 결과를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다. 뉴스 게재면을 신문사별로 살펴봐도, 제주신보의 경우 다른 신문사보다 문화면 게재가 많았고, 제민일보는 대학보도의 사회면 게재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신문사별로 정보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당일 발표된 보도자료 등의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기사 작성이 대부분(80.0%, 1154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학보도가 주로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화되고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설이나 분석을 통해 기사가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도자료란 정부나 기업 등 정보원이 특정 내용의 기사화를 목적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언론에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sup>54)</sup>. 언론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이용한 기사 작성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좋은 기사거리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sup>55)</sup>, 근래 지역언론에서 나타나는 보도자료 의존도 심화는 보도자료를 기초로 2차 취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용에 가까운 인용보도라는 지적<sup>56)</sup>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보도가 뉴스 수용자들의 관심사와 그들에게 미칠 영

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3(2), 2013, 59쪽.

51) 임양준, 「한국 신문의 사람면에 대한 보도형태와 특성 연구: 4대 중앙일간지 사람면 박스기사에 실린 대표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0호, 2007, 251쪽.

52) 이경미·고영철·김경호,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 등장인물의 특성 연구」, 『언론과 학연구』 7(3), 2007, 189-190쪽.

53) 김희정, 앞의 2006 글, 163쪽.

54) 임현수·이준용, 「보도자료 기사화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2), 2011, 7쪽.

55) 송병원·이명천·김요한, 「지역신문의 보도자료 이용과 기사 작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4(4), 2014, 150쪽.

56) 한선, 「광주 지역 미디어 장(field)의 역학구조 변화: 뉴스 통신사의 출현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언론과 사회』 24(3), 2016, 98쪽.

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보도자료 만을 취급함으로써 대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그대로 미디어나 수용자에게 투영될 여지가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보도에 대한 지역일간신문의 관점과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논조를 살펴보았다. 대학보도의 논조를 보면 중립적 보도가 60%(858건)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 보도가 부정적 보도에 비해 9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립적인 보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 긍정, 부정기사의 순으로 나타난 전국일간신문의 대학보도를 분석한 황성욱과 이종혁(2011)<sup>57)</sup>의 연구에서는 중립적인 경우가 96.64%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긍정적인 기사는 2.01%, 부정적인 기사는 1.35%에 불과했다. 이를 비교하면 지역일간신문들은 전국일간신문 보다 지역대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언론 기자의 경우 대부분 그 지역대학 출신이므로 지리적 근접성과 공동의 유대감, 지속적 상호작용의 특징을 보이는 공동체적 속성이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 PR담당자의 지역언론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노력이 부정적 보도를 억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학보도에서 어떤 행위자나 집단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학본부가 가장 높았으며, 교수, 학생 순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다만 대학의 3주체인 직원과 동문 빈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우선 직원은 교육과 연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학의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집단으로서, 뉴스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직원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충분히 지역언론에서 다뤄질 만한 보도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직원 자체에서의 언론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문은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역할하며, 발전기금 모금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점을 십분 이해하여 대학 홍보팀은 퍼블리시티 영역을 대학의 성원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졸업 동문으로 확대해야 하며, 대학 동문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기사 발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들 동문들을 지역언론에 가능한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대학의 개방성이 필요하다.

57) 황성욱·이종혁, 앞의 2011 글, 140쪽.

보도 중심주제는 어떤 측면을 미디어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수용자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보도 중심주제 차원에서 대학보도는 대학 행사와 관련한 홍보성 보도인 행사/홍보를 가장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학 교수나 학생들의 논문상과 학술상 수상이나 최초 연구 및 성과 등을 포함한 개인성과, 국가사업 선정 및 학술협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경영/성과, 개인적인 인사와 동정, 교수 채용 등의 인사/동정, 대학 진학과 입시에 관한 보도인 입시/입학 순이었다. 반면에 비리/사고 기사나 선거 관련 기사는 적었다. 대학보도는 전반적으로 대학행사 홍보와 개인적인 업적에 대한 내용들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보도에 대한 주요 행위자들의 중심 주제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교수들은 논문상과 학술상 수상 등의 개인성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인사/동정, 행사/홍보 순이었다. 학생들 역시 개인적인 업적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성과가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행사/홍보, 실태/통계 순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언론은 교수나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일반도민은 학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기탁이나 장학금 전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발전기금/장학금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총장은 국가사업 선정이나 학술협정 체결 등 대학경영/성과가 가장 많았고, 대학본부는 행사/홍보, 대학경영/성과 순이었다. 나머지 주요 행위자들은 모두 행사 홍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운 대학경영/성과 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역신문이 주목한 뉴스가치를 살펴보면, 각종 대회에서 수상과 논문상, 연구실적 등의 우수성을 강조한 영향성과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는 유용성, 세미나, 심포지엄 등 시의성 순으로 뉴스가치를 꼽고 있었다. 반면에 환경감시 기능에 대한 부정성과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갈등성은 대학보도에서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특이한 점은 제주매일과 제주신문의 부정성 뉴스가 단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제민일보는 대학보도 뉴스가치에서 유용성은 가장 낮은 반면에 부정성과 갈등성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지역일간신문은 영향성과 유용성 뉴스 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뉴스는 정보 혹은 홍보를 주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국의 신문과 방송이 교육 현실의 다양한 대상과 주제들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와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정책과 실행 방식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언론의 다양한 형식, 내용, 시각의 교육보도 실천이 요구된다는 손승혜 등(2011)<sup>58)</sup>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던 한국 교육보도의 문제점인 홍보/소개성 입시 관련 보도 중심의 과도한 강조현상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대상이 제주지역 일간신문에 한정돼 있어 전국일간신문이나 다른 타지역 일간신문과의 비교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분석대상 언론을 지역방송과 인터넷신문을 제외한 지역일간신문으로 제한한 것도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보도의 여러 결과에 대한 지역신문이나 기자들의 보도 관행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뉴스 내용에는 기자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직업적 관행, 언론사 논조나 미디어 외적 차원 등 뉴스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추후 지역언론의 대학 출입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나 현장 관찰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보도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대학보도에 나타난 주요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둠에 따라 효과분석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지역민들이 대학보도를 접한 이후의 시각이나 인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만큼 후속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58) 손승혜·황하성·장윤재, 앞의 2011 글, 136쪽.



## 참 고 문 헌

- 강준만, 「한국언론과 민주주의의 위기: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권, 1993.
- 김경모,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과 온라인 뉴스 생산: 전통과 변화의 경계」, 『언론정보연구』 49(1), 2012.
- 김동규·김경호, 「국내 신문사 취재 조직체계와 관행에 대한 질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5(2), 2005.
- 김사승, 「취재현장과 뉴스룸 내부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방송학보』 26(4), 2012.
- 김송희·윤석년, 「디지털 환경에 따른 지역신문 뉴스생산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2), 2009.
- 김희정, 「대학의 대언론홍보에 관한 연구: 대학 보도자료의 지역 신문 보도 경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3), 2006.
- 박진우·송현주, 「저널리스트 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문직 노동과 직업 전망에 대한 위기의식」, 『한국언론정보학보』 57, 2012.
- 손승혜·이창현, 『TV 저널리즘과 뉴스 가치: 한국, 영국, 미국 TV뉴스의 내용 분석』, 한국언론재단, 1999.
- 손승혜·황하성·장윤재, 「한국 언론의 교육보도 특성과 뉴스 가치 분석」, 『미디어와 교육』 1(1), 2011.
- 송병원·이명천·김요한, 「지역신문의 보도자료 이용과 기사 작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4(4), 2014.
- 심미선·강혜란, 「지상과 및 인터넷에서만 방영된 19대 총선 관련 뉴스에 대한 대학생 집단의 뉴스가치 평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 뉴스 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7(4), 2013.
- 심재철,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뉴스가치에 관한 소론」, 『방송통신연구』 47, 2003.
- 심재철·정완규·김균수, 「한국과 미국 신문의 뉴스가치 비교: 대학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3), 2003.
- 심재철·심재용·김균수·이정훈, 「교육보도와 뉴스가치: 국내의 신문의 대학기사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 오대영, 「언론사 대학평가 기사가 고교생의 대학평가와 언론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4), 2015.
- 오대영·최민음, 「한국 일간지의 헬스기사 보도양상: 종합지와 경제지의 차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6(2), 2016.
- 원숙경·문종대, 「4대강 사업에 대한 시기별 뉴스프레임 비교 연구: 영남 지역 6개 신문의 사실과 칼럼을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20(3), 2016.
- 유태용·이종구, 「대학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성용어들의 요인구조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9(2), 1996.
- 이건호, 「한·미 신문기사의 심층성과 신뢰도 및 독창성 분석: 6개 한국 신문과 2개 미국 신문 1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5), 2008.
- 이경미·고영철·김경호,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 등장인물의 특성 연구」, 『언론과학연구』 7(3), 2007.
- 이민웅, 『저널리즘의 본질과 실천』, 나남, 2008.
- 이완수, 「인물뉴스의 특성과 결정요인 연구: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2, 2006.
- 이완수·배재영·임봉수, 「지역신문 뉴스구성요소의 구조분석: 부산일보 기사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3), 2015.
- 이완수·배정근, 「경제 뉴스 품질에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 탐구: 경제 뉴스 전문 매체 생산자와 소비자 집단에 대한 표적 집단 면접(FGI)」, 『미디어 경제와 문화』 14(4), 2016.
- 이종혁, 「뉴스의 일탈성이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진화론, 인지부조화, 정보 효용성을 바탕으로 모델 도출」, 『한국언론학보』 53(6), 2009.
- 이종혁·길우영·강성민·최윤정, 「다매체 환경에서의 뉴스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한 종합적 구조적 접근: ‘뉴스 가치 구조모델’ 도출」, 『한국방송학보』 27(1), 2013.
- 이창현·손승혜, 「뉴스 아이템의 특성에 따른 TV 뉴스의 중요도 차이」, 『한국언론학보』 44(1), 1999.
- 임양준, 「한국 신문의 사람면에 대한 보도형태와 특성 연구: 4대 중앙일간지 사람면 박스기사에 실린 대표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0, 2007.
- 임양준, 「용산사태에 대한 일간신문의 뉴스보도 비교연구: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1), 2010.
- 임현수·이준웅, 「보도자료 기사화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2), 2011.

- 정수영·남상현, 「지상파TV 3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무보도와 단독보도 뉴스에 관한 연구: 뉴스 주제와 뉴스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4), 2012.
- 최태룡,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 대학-경상대학교에 대한 진주시민의 인식 2008년」, 『지역사회학』 11(2), 2010.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kess.kedi.re.kr/index> 2017. 7. 26. 접속.
- 한선, 「광주 지역 미디어 장(field)의 역학구도 변화: 뉴스 통신사의 출현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언론과 사회』 24(3), 2016.
- 홍병기,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른 뉴스가치 비교 분석: 국내 영자신문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3(2), 2013.
- 홍주현·김경희,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뉴미디어 정책 관련 사설의 의제 및 보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2017.
- 황성욱·이종혁, 「대학보도 분석을 통한 대학이미지 향상 PR전략 탐색: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1), 2011.
- 황하성·손승혜·장윤재, 「교육 보도에 있어서 정보원, 뉴스 선정, 취재 관행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9(1), 2012.
- Gans, H. J.,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Pantheon Books, 1979.
- McCombs, M. E., “*Setting the agenda*”, Cambridge: Polity, 2004.
- Rynes, S. L. (In press). Recruitment, job choice, and post-hire consequences: A call for new research directions. In M.D. Dunnette & L. Hough (Ed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nd ed.).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forthcoming, 1991.
- Shoemaker, P. J., & Poe, T. P., “*Gatekeeping theory*”. New York : Routledge, 2009.
- Shoemaker, P. J., & Reese, D. R., “*Mediating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s*”. New York: Longman. 1996, 김원용(옮김), 미디어 사회학, 나남, 1997.
- Shoemaker, P. J., Danielian, L. H., & Brendlinger, N., “Deviant acts, risky business, and U.S. interests: The newsworthiness of world events”, *Journalism Quarterly*, 37, 1991.

Abstract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News Coverages of Local Newspapers : Focusing on Content Analysis of Daily Newspapers in Jeju

Jung Yong Bok\* · Kim Chi-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ormal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news coverages in daily newspapers of Jeju area. To achieve this purpos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news coverages were analyzed by considering types of reports in local newspapers and formal compositions, such as news insertion locations and forms of information, and identifying tones of reports, primary doers, central topics and values of news. The contents from a total of 1442 university news coverages were analyzed for a year from March 1st 2015 to February 28th 2016. As a result, straight articles occupied the largest proportion of reports, and it was followed by commentaries/analyses and columns/verdicts. People section occupied almost half the news insertion locations, and it was followed by culture section and general news sec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forms of information among newspapers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university news coverages were mostly published through news releases, and based on this data, articles were written through commentaries or analyses. Neutral reports occupied the biggest proportion of tones of university news coverages,

---

\* Lead Author, Ph.D,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the proportion of positive reports was nine times higher than the proportion of negative reports. When analyzing doers or groups that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university news coverages, universities had the highest frequency, and it was followed by professors and students. University news coverages put emphasis on university event promotions and personal achievements overall. Moreover, the influence emphasizing prizes in competitions and paper prizes and excellence of research results and the usefulness of various event promotions on campus frequently appeared as values of news. This implies that local daily newspapers pay less attention to university news coverages, and for newspapers, universities are not regarded as important news beats.

Key Words : Local Newspapers, University News Coverage, Content Analysis, Formal Characteristics, Content Characteristic.

**교신 : 김치완**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E-mail : [dasan@jejunu.ac.kr](mailto:dasan@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7. 08. 31

심사완료일: 2017. 09. 29

게재확정일: 2017. 10. 01